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1. 11. 18.(목) 배포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DMZ정책과 DMZ개발팀
2	-	○	과장 : 장동현 (031-8030-2650)
			팀장 : 박순향 (031-8030-2671)
			담당 : 박소진 (031-8030-2675)

청년 작가의 예술혼, 평화누리길에 피었다 ·도, 공모전으로 3개 우수작 발굴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심사위원 평가 거쳐 강건 ‘하나의 빛’ 등 3개 작품 우수작 선정

- 평화누리길 고양 4코스, 파주 6코스, 연천 12코스에 작품 설치·전시

DMZ 일원의 대표 트레킹 명소인 평화누리길을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 청년 예술가들의 우수 작품이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7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평화누리길 내 야간 조명 또는 상징 이미지가 필요한 곳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반영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청년 예술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7개의 아이디어가 응모됐다.

이중 1·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강건 작가의 ‘하나의 빛’, 김성필 작가의 ‘평화의 메아리’, 김지언·김시찬 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 총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입상 작가에게는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200만원의 상금과 2,00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했다.

강건 작가의 ‘하나의 빛’은 평화가 이뤄지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역사를 사슬을 통해 은유한 작품으로, 평화를 향한 염원과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필 작가의 ‘평화의 메아리’는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의 간절한 울림을 LED 조명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지하차도라는 설치 장소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끝으로 김지언·김시찬 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은 이산가족이 상봉해 서로 얼싸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분단을 넘어 다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잘 나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 주효했다.

이들 작품은 현재 고양 평화누리길 5코스 휴게공원, 파주 평화누리길 6코스 동패지하차도, 연천 평화누리길 12코스 종료 지점 역고드름에 각각 설치돼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김지언 작가는 “평화누리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잠깐이라도 상상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공모전 참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화누리길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모든 참가자에 감사드린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평화누리길에 실현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도민들이 평화누리길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